

양육 동기에 따른 자녀 관계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

Parenting Motives Moderate the Link between Parents'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their Children and Subjective Well-Being

이화령^{1*} · 신지은^{2*} · 서은국^{3†}

Hwaryung Lee¹ · Ji-eun Shin² · Eunkook M. Suh^{3†}

Abstract

Children play a crucial role in the lives of parents, but research o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has focused mainly on its impact on parents' social relationships and happiness. This study explored how parenting motives affect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s'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and subjective well-being. Previous studies have suggested that the psychological benefits of achievement or positive experiences in specific life domains are dependent on the perceived importance of such domains. Thus, we hypothesized that a satisfying relationship with children can strongly predict the subjective well-being of parents with elevated parenting motives. The study included Korean (Study 1) and American (Study 2) participants. Results of both studies demonstrated a pronounced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arents'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and subjective well-being in individuals with high levels of parenting motives. This moderating effect persisted even after controlling for relevant covariates (e.g., gender, age, and Big 5 personality traits). Notably, this effect was particularly evident in subfactors of subjective well-being, which is negative affect.

Key words: Parenting Motive,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Subjective Well-Being, Domain Satisfaction

요약

자녀는 부모 삶과 적응의 핵심적인 요소다.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사회적 관계가 행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밝혀진 바 있지만, 부모-자녀 관계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자녀 관계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초점을 맞추고, 이 둘 간의 관련성이 양육 동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정 영역에서의 성취나 긍정적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혜택이 해당 영역에 부여된 중요성에 좌우된다는 선행 문헌들을 고려했을 때, 자녀와의 만족스러운 관계는 높은 양육 동기를 가진 부모의 주관적 안녕감을 더 강하게 예측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가설을 알아보기 위해 총 2개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예상대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 간 정적 상관은 양육 동기가 높은 개인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양육 동기의 조절 효과는 한국인(연구 1)과 미국인(연구 2) 모두에게서 일관되게 관찰되었으며, 문화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나 자녀의 성별, 나이 등을 통제하고서도 유효했으며, 특히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 중 부정 정서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었다.

주제어: 양육 동기, 자녀 관계 만족도, 주관적 안녕감, 영역 만족도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1043616).

* These authors contributed equally to this work.

¹ 이화령: 전남대학교 인공지능융합연구소 박사후연구원

² 신지은: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3†} (교신저자) 서은국: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E-mail: esuh@yonsei.ac.kr / TEL: 02-2123-2446

1. 서론

좋은 사회적 관계는 행복의 필수적인 요소다(Diener et al., 2018; Epley & Schroeder, 2014; Sun et al., 2020).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자녀는 부모 삶의 새로운 중심축이 된다. 그럼에도 양육이나 부모-자녀 관계는 지금까지 행복 연구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일부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은 다소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고한다. 부모가 비(非)부모에 비해 더 많은 긍정 정서를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예, Musick et al., 2016; Nelson et al., 2013; White & Dolan, 2009)가 존재하는 반면, 양육 활동이 오히려 긍정 정서를 떨어트린다는 연구 결과(예, Hudson et al., 2020; Kahneman et al., 2004)도 보고되었다. 이는 양육이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부담과 피로감 등의 부정적인 측면과 그 과정에서 얻는 삶의 의미와 보람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경험임을 나타낸다(Nomaguchi & Milkie, 2003; 2020). 양육을 일종의 “mixed bag”이라 부르는 것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Musick et al., 2016). 이상의 내용은 자녀와의 관계가 부모의 행복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이해하는 데 있어 부모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육 활동의 심리적 기반이 되는 ‘자녀 양육 동기’를 중심으로 기혼자의 자녀 관계 만족도와 이들의 행복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자녀 관계 만족도와 부모의 주관적 안녕감

양육은 인간의 생존 및 번영을 이끄는 근간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양육 경험의 복잡성을 반영하듯, 지금까지 알려진 자녀 양육과 부모 행복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Nelson-Coffey, 2018).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축의 연구들은 양육과 행복 간의 정적 상관을 지지한다. 양육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행위로, 부모들은 양육 과정에서 많은 긍정 정서와 의미를 경험한다는 것이다(Musick et al., 2016;

Nelson et al., 2013; White & Dolan, 2009). 실제로, 자녀가 행복의 원천이라는 믿음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으며(Delle Fave et al., 2016; Hansen, 2012), 자녀와 가족은 개인 행복의 최우선적인 요소로 꼽힌다(Lee et al., 2000). 사람들은 출산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고(Prentice & Carranza, 2002), 자녀가 있는 가족을 더 긍정적으로 판단한다(Kopper & Smith, 2001; Koropeckyj-Cox et al., 2018).

하지만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부모 대 비부모,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대 그 외 시간과의 비교 등 간접적인 분석을 통한 결론이며(Bhargava et al., 2014; Nelson et al., 2014),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게다가 보편적 신념과 달리, 또 다른 축의 연구들은 양육이 행복과 정적 상관을 가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한다. 예를 들어, 종단 연구에 따르면 부모 1-2년차에 가장 높던 행복 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Dyrdal & Lucas, 2013; Luhmann et al., 2012; Myrskylä & Margolis, 2014), 일상의 정서 경험을 추적한 연구(예, 경험표집법, 일상재구성법)도 양육 활동이 긍정 정서를 낮추거나 부정 정서를 높인다고 보고한다(Hudson et al., 2020; Kahneman et al., 2004). 따라서 부모-자녀 관계와 행복의 관련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세 번째 축의 연구들에서는 양육 자체보다 이에 근거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를 다룬다. 이와 밀접한 개념으로 영역 만족도(domain satisfaction)를 들 수 있다. 행복을 일컫는 학술적 개념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 Diener, 1984)으로, 이는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 부정 정서의 세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다면적 특성을 가진다.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이므로, 무엇이 개인의 행복에 기여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이는 종종 시간이나 돈 등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Frey & Stutzer, 2014). 따라서 연구자들은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구체적인 패턴 및 개인차를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삶의 영역별로 만족도를 별도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Headley et al., 1985; Heller et al., 2004). 이에 따르면, 삶의 특정 영역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전반적인 행

복감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Cummins et al., 2003; Gonzalez et al., 2010; Loewe et al., 2014; Tiefenbach & Kohlbacher, 2015), 사람들은 중요한 일부 영역(예, 사회적 관계, 경제 수준)에 대한 만족을 기준으로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판단하는 모습을 보인다(Schimmack et al., 2002; Schimmack & Oishi, 2005). 이와 유사하게, 시간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 패턴 또한 하위 영역별 만족도를 통해 추론 가능하다(McAdams et al., 2012). 그렇다면 다양한 삶의 영역별 만족도 중 전반적 행복감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특정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 행복감에 기여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으로 먼저 영역 특정적(domain-specific) 자존감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예로 들 수 있다(Crocker, 2002; Crocker & Wolfe, 2001).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근본적인 욕구를 가지며, 일상의 다양한 성패 경험은 자존감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특정 영역에서의 성패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에 따라 다르며, 이러한 개인차는 주로 해당 영역에 부여하는 가치와 중요성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학업 성취를 삶의 중요한 목표로 여기는 A의 자존감은 시험 성적에 크게 좌우되지만, 사회적 소속과 유대를 최우선으로 하는 B의 자존감은 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Crocker & Wolfe, 2001; Murray et al., 2003). 개인의 생애 발달 단계와 과업에 의한 개인차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Orth & Robins, 2014; Orth et al., 2018).

이러한 현상은 자기를 넘어 행복에 대한 판단으로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더 우선시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영역 또는 과업에서의 성취와 긍정적 경험 일수록 전반적인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Tiefenbach, & Kohlbacher, 2015). 예를 들어, Oishi et al.(1999)은 특정 영역에서의 성취가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가치(value)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Oishi et al., 1999). 이에 따르면, 학업 영역에서의 긍정적인 평가(예, 높은 학점)와 만족도가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예측하는 정도는 성취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유사한 맥락에서, 사회적 참여와 상호작

용은 직장에 근무 중인 사람보다 실직/퇴직으로 관계망이 약화된 사람(Harlow & Cantor, 1996),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보다 빈곤한 사람(Shin, 2019)의 삶의 만족도에 더 중요한 요소다. 이상의 결과는 특정 영역 만족도가 전반적인 행복감에 기여하는 정도가 해당 영역의 가치 및 중요성이 높을 때 강하게 나타남을 잘 보여준다(Hsieh, 2016). 따라서 자녀와의 만족스러운 관계는 이를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의 주관적 안녕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동기' 수준에 주목하고, 자녀 관계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가 양육 동기에 의해 조절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2. 양육 동기의 중요성

자녀의 양육은 인간의 생존 및 번영을 이끄는 근간이다. 이는 최근 진화 심리학자들이 재해석한 매슬로의 욕구 피라미드에서도 잘 드러난다(Kenrick et al., 2010). Kenrick et al.(2010)은 성공적인 재생산(reproduction)을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로 보고 피라미드의 최상위에 자녀 양육을 두었다. 이때 양육 활동의 중요한 심리적 기반이 되는 것이 이러한 근본적 관점에서의 '양육 동기'다(Neel et al., 2016). 그간 동기를 다룬 선행 연구들은 동기를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정의하고, 대개 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밝혔다(Atkinson, 1964; Sheldon, 2004). 높은 동기는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정보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만들고,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며, 목표 달성에 요구되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돕기 때문이다(Covington, 2006). 동기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학업 장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성취 동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동기는 사회적 영역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예, Kim et al., 2014). 동기는 행동을 이끄는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가치와 유사하지만, 가치에 비해 더 구체적인 상황을 잘 반영하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양육 동기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시되는 근본적 동기 중 하나로(Pick et al., 2022), 비교적 최근에 정립된 개념이다(Kenrick et al., 2010). 이 양육 동기는 오랜 양육 행동에 필요한 일련의

인지, 정서, 행동적 특징들을 활성화하는 기능을 한다 (Kaplan et al., 2000; Kenrick et al., 2010; Neel et al., 2016; Schaller, 2018). 예를 들어, 양육 동기는 연민과 공감을 비롯한 이타적 행동을 촉진하고(Batson, 2012), 엄격하고 보수적인 도덕적 판단 및 행동을 이끌며 (Eibach et al., 2009; Kerry & Murray, 2018),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자신과 하나의 개체로 통합하여 인식(Li & Gong, 2018)하게 함으로써 돌봄 행동을 촉진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육 동기에도 개인차가 존재한다. 같은 부모더라도 Neel et al.(2016)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 양육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한 상대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선호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성실성이 높으며, 우호적 성향이 높은 등 효과적인 자녀 양육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살핌(Parental care; Buckels et al., 2015) 동기가 높은 사람들도 아기와 어린이를 보호하거나 보살피려는 태도, 관련 감정(예, 다정함, Tenderness)을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고, 자녀와의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보고하는 모습을 보인다 (Buckels et al., 2015; Hofer et al., 2018). 양육 동기가 높은 부모일수록 실제로 자녀와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고 이를 삶의 중요한 목표로 삼는 경향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일련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자녀와의 관계 질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의 양육 동기 수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양육 동기 수준에 어떤 개인차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자녀 관계 만족도와 행복을 조절하는 변인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 검토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2.3. 본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자의 자녀 관계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육 동기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Fig. 1). 동기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이론 및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했을 때, 자녀와의 만족스러운 관계는 양육 동기가 높은 부모의 주관적 안녕감을 더 강하게 예측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 양육은 보편적으로 부모의 직접적인 보호와 보살핌이 필수적인 미성년 시기에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선행 연구들과 같이 자녀가 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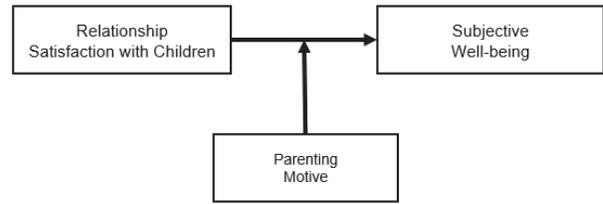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년인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했다(Buckels et al., 2015).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점을 가진다. 첫째, 영역 만족도를 다룬 선행 연구들은 주로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측면인 삶의 만족도에만 중점을 두었다(Schimmack et al., 2002; Schimmack & Oishi, 2005). 그러나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만족뿐 아니라 정서적 안녕감인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육 동기의 조절 효과가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양육은 보편적으로 중요한 생애 과업으로 여겨지지만, 문화에 따라 이에 부여하는 가치나 태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연구 1)과 미국인(연구2)을 대상으로 높은 양육 동기와 행복의 관련성이 문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지 반복 검증하고자 한다. 모든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7001988-201906-HR-624-02)을 거쳐 진행되었다.

3. 연구 1

연구 1의 목적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와 부모의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녀에 대한 양육 동기 수준이 이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성년 자녀를 둔 한국 부모를 대상으로 이들의 자녀 관계 만족도, 양육 동기,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였다. 자녀와 자녀에 대한 양육은 대체로 부모 삶의 중심에 자리하지만, 이에 대한 동기 수준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양육 동기가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가정하였다.

3.1. 방법

3.1.1. 참가자

참가자는 설문 조사 전문 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모집했으며, 만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국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참가자 수는 353명(남자 189명, 여자 164명)으로, 연령 범위는 34-56세($M = 45.18$, $SD = 4.68$)였다. 자녀가 1명인 경우가 148명, 2명인 경우가 177명, 3명인 경우가 26명, 4명인 경우가 2명이었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5,000원 상당의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였다.

3.1.2. 측정 도구

자녀 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영역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참고한 것으로, 참가자들은 7점 척도(1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7 = 매우 만족한다)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양육 동기 양육 동기는 사회적 동기 척도(Fundamental social motives inventory; Neel et al., 2016) 중 자녀 돌봄(Kin care motive: Child)에 해당하는 6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이 현재 자녀 양육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쏟고 있는지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시로는 ‘나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나의 가장 우선 순위는 아니다(역문항)’ 등이 있다. 모든 문항은 이중 언어자의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쳐 번안되었다. 참가자들은 주어진 문항들이 현재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지를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는 .78로 나타났으며, 합산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에 대한 동기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은 인지적 판단인 삶의 만족과 정서적 경험을 반영하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총 3개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삶의 만족은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의 한국어 문항을 사용해 측정하였다(Diener et al., 1985; Lim et al., 2010). 예시 문항은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등이다. 참가자들은 주어진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는 .91로 나타났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는 Diener et al.(2009)의 긍정 및 부정 경험 척도(Scale of Positive and Negative Experience; SPAN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난 한 달 동안 전반적인 정서 경험의 빈도를 묻는 문항으로, 각 6개의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나타내는 총 12개의 형용사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이중 언어자의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쳐 번안되었으며, 긍정 정서는 ‘긍정적인’, ‘좋은’, ‘즐거움’, ‘행복한’, ‘유쾌한’, ‘만족스러운’, 부정 정서는 ‘부정적인’, ‘나쁜’, ‘불쾌한’, ‘슬픈’, ‘두려운’, ‘화난’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각 정서를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를 7점 척도(1 = 전혀 느끼지 않았다, 7 = 항상 느꼈다)로 응답하였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는 긍정 정서가 .92, 부정 정서가 .88로 나타났다.

기타 통제 변인 본 연구는 기존 부모-자녀 관계 및 행복 연구들에 기반하여 공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변인들을 측정하여 통제했다. 구체적으로, 부모 참가자 자신의 성별과 나이와 함께 자녀 수에 대한 정보(Le et al., 2019)와 함께, 행복과 연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사회경제적 지위를 함께 측정했다. 특히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 수준이 다양한 심리 사회적 현상을 더 잘 예측함을 고려하여 주관적 사회 지위 척도(MacAuthur Scale of Subjective Social Status; Adler et al., 2000)를 사용했다. 참가자들은 10개의 가로대가 있는 사다리 모형을 기준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 내 지위를 10점 척도(1 = 가장 낮은 사회적 지위, 10 = 가장 높은 사회적 지위)로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경제 수준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3.1.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핵심 가설은 양육 동기가 부모의 양육 동기 수준이 자녀 양육 영역의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긴밀성을 조절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우선 주요 변인과 이 변인에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을 가진 통제 변인간의 단순 상관관계를 우선 확인한다. 이때, 선행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주요 변인들이 예상되는 상관 관계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양육 동기의 조절 효과 분석을 위해 통제해야하는 인구 통계학적 변인들을 확인해 공변인으로 투입하여 통제하고자 한다.

3.2. 결과

우선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단순 상관 분석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예상대로 참가자들의 자녀 관계 만족도는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삶의 만족, $r = .39$; 긍정 정서, $r = .52$; 부정 정서 $r = -.33$; 모두 $p < .001$). 구체적으로, 자녀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부모들은 자신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긍정 정서는 더 빈번하게 느끼며, 부정 정서는 덜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자녀 관계 만족도는 양육 동기와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39$, $p < .001$). 이는 양육에 대한 동기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체로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양육 동기는 긍정 및 부정 정서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긍정 정서, $r = .21$; 부정 정서 $r = -.25$; 모두 $p < .001$), 삶의 만족도와는 관련이 없었다($p > .05$). 추가 변인 중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 관계 만족도, 삶의 만족, 긍정 정서, 부정 정서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첫째 자녀 나이는 삶의 만족 및 긍정 정서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이 두 변인을 이후 조절 분석에서 공변인으로 투입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자녀 관계 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양육 동기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했다. 이를 위해 Hayes(2013)가 개발한 PROCESS Macro (model 1)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독립 변수에는 자녀 관계 만족도, 조절 변수에는 양육 동기가 투입된 상태에서 삶의 만족, 긍정 정서, 부정 정서 각각을 종속 변수로 하여 조절 효과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붓스트랩(bootstrap) 표본 수는 5,000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양육 동기는 자녀 관계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동기는 자녀 관계 만족도와 삶의 만족($b = .12$, $SE = .05$, $p = .013$, $CI95 = [0.03, 0.21]$), 자녀 관계 만족도와 부정 정서($b = -.10$, $SE = .04$, $p = .025$, $CI95 = [-0.19, -0.01]$)의 관계를 유의하게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inter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Study 1)

	M (SD)	1	2	3	4	5	6	7	8	9
1.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4.87 (1.22)	—								
2. Parental motive	5.29 (0.90)	.39***	—							
3. Life satisfaction	3.98 (1.22)	.41***	.00	—						
4. Positive affect	4.53 (1.01)	.52***	.21***	.74***	—					
5. Negative affect	3.64 (1.10)	-.33***	-.25***	-.37***	-.50***	—				
6. Gender (1=female)	0.47 (0.50)	-.05	.05	-.05	-.03	.00	—			
7. Age	44.99 (4.68)	.00	.02	-.08	-.04	.00	-.29***	—		
8. Number of children	1.67 (0.64)	-.02	-.02	-.01	-.01	.09	.01	-.09	—	
9. Age of the first child	12.74 (3.70)	-.02	-.06	-.13*	-.11*	.08	-.04	.65***	.21**	—
10. Socioeconomic Status	5.50 (1.70)	.16**	.00	.42***	.36***	-.21***	-.02	-.04	-.06	-.08

$N = 354$,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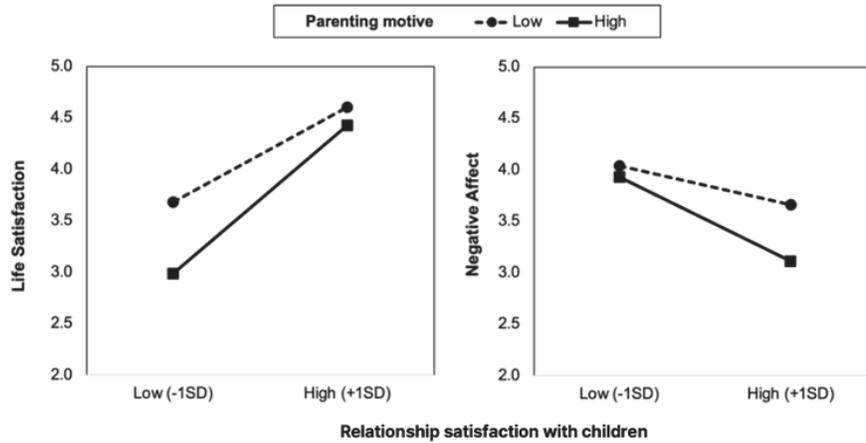


Fig. 2. Parenting motive as a moderator of the association between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and subjective well-being (Study 1)

조절했다. 하지만 긍정 정서에서는 이러한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5$). 구체적으로, 자녀 관계 만족도는 양육 동기가 낮은 부모의 주관적 안녕감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b = .28, SE = .07, p < .001, CI95 = [0.14, 0.41]$), 이러한 경향성은 양육 동기가 높은 부모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b = .65, SE = .07, p < .001, CI95 = [0.51, 0.79]$). 마찬가지로 자녀 관계 만족도는 양육 동기가 낮은 부모의 부정 정서를 부적적으로 예측하였으며($b = -.14, SE = .07, p = .030, CI95 = [-0.27, -0.01]$), 이러한 경향성은 양육 동기가 높은 부모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b = -.35, SE = .07, p < .001, CI95 = [-0.48, -0.22]$). 양육 동기의 조절 효과는 공변인을 투입한 이후에도 유효했다(삶의 만족, $p = .021$, 부정 정서, $p = .032$).

4. 연구 2

연구 1의 결과를 통해 부모의 양육 동기 수준이 자녀 관계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를 조절함을 밝혔다. 그러나 연구 1은 과보호 양육 동기와 가족 중심적 문화를 가진 한국인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문화에 따라 양육에 부여하는 가치나 중요성, 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했을 때(Harkness & Super, 2002), 앞서 나타난 현상이 다른 문화권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는 부모-자녀 간 강한 정서적 밀착과 의존, 부모의 희생과

높은 교육열 등의 특징을 가진다. 부모-자녀 간 경계가 모호할수록 과도한 양육 행동과 함께 부모가 불안과 우울 같은 부정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도 높다(Manzi et al., 2006; Segrin et al., 2012; 2014). 이에 연구 2에서는 양육 동기의 조절 효과를 미국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탐색하여 이 현상이 문화 보편적인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4.1. 방법

4.1.1. 참가자

만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미국인 부모를 대상으로 Amazon Mechanical-Turk의 Cloud Research 플랫폼을 이용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참가자는 총 265명(남자 101명, 여자 164명)으로, 연령은 20-57세($M = 37.92, SD = 7.12$)였다. 부모당 자녀 수는 평균 1.83명($SD = .78$)으로 최대 4명이었으며, 자녀 1명인 경우가 98명, 자녀 2명인 경우가 121명, 자녀가 3명인 경우가 238명, 자녀 4명인 경우가 8명이었다. 참가자들은 연구 참가 완료 1일 이내 플랫폼을 통해 \$0.8 상당의 보상을 받았다.

4.1.2. 측정 도구 및 분석 방법

연구 1과 동일한 문항을 영문으로 사용했다. 우선, 참가자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1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7 = 매우 만족한다’의 7점 척도를 사용해 응답했다. 양육 동기 또한 근본적 사회 동

기 척도의 6분항 자녀 돌봄 동기(Kin Care Motive: Child) 원문항을 이용해 측정하였다(Neel et al., 2016). 참가자들은 각 문항이 현재 자신에게 얼마나 잘 적용된다고 생각하는지 ‘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내적 합치도는 .70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 또한 전반적인 삶의 만족과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빈도로 측정하였다. 삶의 만족은 5분항 삶의 만족도 척도(SWLS; Diener et al., 1985) 원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내적 합치도는 .90으로 나타났다.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빈도는 긍정 및 부정 경험 척도(SPANE; Diener et al., 2009) 원문항을 이용해, 각 정서들을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1 = 전혀 느끼지 않았다’, ‘7 = 항상 느꼈다’의 7점 척도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내적 일치도는 긍정 정서는 .92, 부정 정서는 .94로 높은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기존 부모-자녀 관련 연구들에서 공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참가자의 성별과 나이, 자녀 수와 첫째 자녀 나이, 사회경제적 수준을 연구 1과 동일하게 측정하였다.

분석 절차 또한 연구 1과 동일했다. 주요 변인과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단순 상관분석하여 본 표집에서 주요 변인과 이 변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진 통제 변인간의 단순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조절 효과 분석시 통제해야하는 인구 통계학적 변인들을 확인하여 공변인으로 투입하고자 했다.

4.2. 결과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단순 상관 분석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자녀 관계 만족도는 주관적 안녕감 요인들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삶의 만족, $r = .31$; 긍정 정서, $r = .36$; 부정 정서 $r = -.23$; 모두 $p < .001$). 자녀 관계 만족도는 양육 동기와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22, p < .001$). 그러나 연구 1과 달리, 미국인 참가자들의 양육 동기는 삶의 만족 및 부정 정서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삶의 만족, $r = -.24$; 부정 정서 $r = -.26$; 모두 $p < .001$), 긍정 정서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p > .05$). 사회경제적 지위는 양육 동기, 삶의 만족, 긍정 정서와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나이와 자녀 수가 양육 동기와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inter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Study 2)

	M (SD)	1	2	3	4	5	6	7	8	9
1.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5.89 (1.16)	—								
2. Parental motive	5.96 (1.01)	.22***	—							
3. Life satisfaction	5.00 (1.37)	.31***	-.24***	—						
4. Positive affect	5.30 (1.15)	.36***	-.16	.65***	—					
5. Negative affect	3.08 (1.50)	-.23***	-.26***	-.25***	-.38***	—				
6. Gender (1=female)	0.62 (0.49)	.05	.09	-.01	-.04	.09	—			
7. Age	37.92 (7.12)	-.05	.13*	-.16**	-.06	.00	-.12***	—		
8. Number of children	1.83 (0.78)	.11	.13*	.15*	.12	-.08	.05	-.01	—	
9. Age of the first child	9.07 (4.99)	.05	.10	-.06	.02	-.01	-.09	.58***	.30***	—
10. Socioeconomic Status	5.80 (1.83)	.04	-.39***	.42***	.31***	.10	.01	-.07	.06	-.09

N = 265,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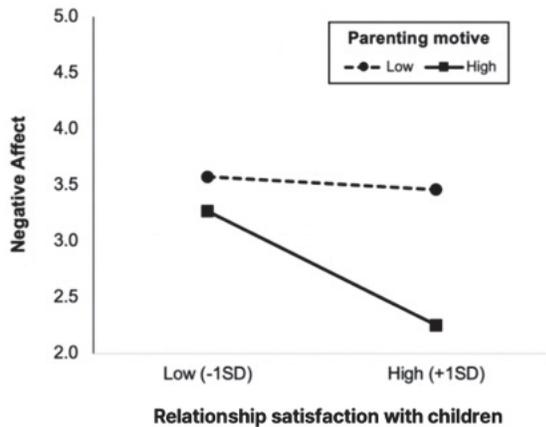


Fig. 3. Parenting motive as a moderator of the association between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and negative affect (Study 2)

삶의 만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 나이, 자녀 수를 조절 분석에서 공변인으로 투입하고자 했다.

양육 동기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 1과 동일하게 Hayes(2013)의 PROCESS Macro(model 1)를 활용했다. 독립 변수는 자녀 관계 만족도, 조절 변수에는 양육 동기가 투입된 상태에 삶의 만족, 긍정 정서, 부정 정서 각각을 종속 변수로 투입하여 분석을 진행했으며, 모든 분석에서 부스트랩(bootstrap) 표본 수는 5,000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양육 동기는 자녀 관계 만족도와 부정 정서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20$, $SE = .07$, $p = .008$, $CI95 = [-0.34, -0.05]$). 그러나 삶의 만족과 긍정 정서에 대해서는 이러한 양육 동기의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5$). 부정 정서에 대한 양육 동기의 조절 효과는 공변인을 투입한 이후에도 유효했다($b = -.20$, $SE = .08$, $p = .007$, $CI95 = [-0.35, -0.06]$).

5. 종합 논의

자녀는 부모 삶과 적응의 핵심적인 요소다. 따라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주관적 안녕감의 주요한 예측변인 중 하나다(Casas et al., 2008). 그러나 이와 동시에 양육은 복합적인 정서 경험으로, 행복과도 다소 비일관적 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Nelson et al., 2014;

Nomaguchi & Milkie, 2020). 이에 점차 학자들은 ‘언제’ 자녀가 부모의 행복에 더/덜 기여하는지 밝히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따라 자녀 관계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특정 영역의 성취 및 만족이 제공하는 심리적 영향력은 개인이 해당 영역에 부여하는 중요성에 좌우된다(Crocker, 2002; Oishi et al., 1999). 따라서 자녀와의 만족스러운 관계는 특히 높은 양육 동기를 가진 부모의 주관적 안녕감과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연구 결과, 예상대로 자녀 관계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 간 정적 상관은 양육 동기가 높은 부모에게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패턴은 한미 두 문화권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단, 구체적인 현상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인 부모의 경우, 양육 동기의 조절 효과는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정서적 측면 모두에서 나타났으나(연구 1), 미국인 부모의 경우에는 정서적 측면, 특히 부정 정서에서만 나타났다(연구 2).

본 연구 결과의 몇 가지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많은 행복 연구를 통해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이 확인된 바 있지만(Diener et al., 2018; Sun et al., 2020), 대부분이 미혼자를 대상으로 친구나 동료, 연인 등 개인의 선호 및 가치관에 기반한 관계를 다루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결론과 출산은 인생의 큰 전환점 중 하나로, 부모의 관계적 삶의 중심에는 자녀가 새롭게 자리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자녀 관계 영역을 살펴보는 것은 한 개인의 생애별 행복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기혼자 부모를 대상으로 이들의 자녀 관계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을 검토함으로써 행복의 관계적 특성에 대한 기존 이해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행복에 대한 상향식(bottom-up) 접근을 다룬 선행 연구들과 일관된 결과를 나타낸다. 행복, 즉, 주관적 안녕감은 다양한 정보에 기반한 종합적인 판단이다. 따라서 개개인이 경험하는 행복의 이유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삶의 영역을 다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자연히 영역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졌고, 이를 통해 개개인의 행복에 대한 보다 세밀한 패턴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Heller et al.,

2004; McAdams et al., 2012). 본 연구는 자녀와의 관계라는 영역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만족도가 부모의 주관적 안녕감을 긍정적으로 예측하며, 나아가 양육 동기가 이 과정을 조절함을 밝혔다. 이는 영역별 성취 및 만족의 심리적 영향력이 해당 영역의 가치와 중요성에 좌우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상통한다(Brown, 2012; Crocker, 2002; Tiefenbach & Kohlbacher, 2015). 즉, 사람들은 특히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영역에 대해 자신의 역량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성패나 만족감에 기반하여 자기 가치와 전반적인 행복감을 판단하는 것이다. 추후 실험을 통해 양육 동기 수준을 조작하고 이에 따른 조절 효과를 살펴본다면 인과 관계에 대한 좀 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행복에 대한 상향식(top-down) 접근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는 행복을 삶의 영역별 만족의 합으로 간주하기보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강조한다.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성취나 만족감으로 인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행복한 사람이 다양한 삶의 영역에 대해 만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도 행복한 부모일수록 자녀와의 관계에 더 만족하며, 이러한 경향성이 양육 동기가 높을 때 더 강하게 드러난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분적인 답을 제공하고자 추가 분석해 본 결과, 반대 방향의 조절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양육 동기의 개인차뿐 아니라 그 기저에 자리한 문화도 함께 고려하였다. 양육 동기의 조절 효과를 미국 부모를 대상으로 반복 검증한 결과 비교적 보편적 현상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문화차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을 위해 연구 1과 2의 자료를 통합하여 문화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 부모와 미국 부모 간 주요 변인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all, $p > 0.5$), 주관적 안녕감 변인 모두에 대해서 양육 동기 조절효과 또한 국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Hays(2013) model 3: 삶의 만족도; $b = -.09$, $SE = .08$, $p > .05$, $CI95 = [-0.25, 0.07]$; 긍정 정서; $b = -.03$, $SE = .07$, $p > .05$, $CI95 = [-0.15, 0.10]$; 부정 정서; $b = -.09$, $SE = .08$, $p > .05$, $CI95 = [-0.25, 0.07]$). 보다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본 연구 결과는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양육 동기

의 조절 효과가 문화 보편적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화와 관련된 일부 유의미한 차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관분석 결과, 한국인 부모의 양육 동기는 높은 긍정 정서 및 낮은 부정 정서와 관련되었지만, 미국인 부모의 양육 동기는 낮은 삶의 만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 및 이에 관한 동기의 양면적 특성을 시사하며, 실제로 연구자들은 양육이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주는 복합적인 경험임을 반복적으로 보고한 바 있다(Nomaguchi & Milkie, 2003; 2020). 높은 양육 동기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과도한 기대감이나 목표, 정체성 미분리 등과 관련된 부적응적 측면도 내포할 수 있다(Lee & Shin, 2021). 양육 동기가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영역에도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한국인 부모가 양육 동기가 높은 경우, 자녀와의 만족스러운 관계는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인 모두에 효과적이었으나, 미국인 부모가 양육 동기가 높은 경우에는 부정 정서 완화에만 효과적이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에는 양육 동기 수준에 상관없이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안녕감의 중요한 요소인 데 반해, 미국인의 경우에는 양육 동기가 낮으면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안녕감과 아무런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문화적 기반에 따라 양육 동기가 부모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왜 양육 동기의 조절 효과가 부정 정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일까?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겠으나, 이는 우선 주관적 안녕감이 서로 독립적인 하위 요소들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이라는 선행 연구들과 일관된다. 일례로 경제적 영역을 살펴보면, 돈/소득은 정서적 안녕감보다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이며, 정서적 안녕감 중에서도 부정 정서(예, 슬픔)를 완화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보고된 바 있다(Kahneman & Deaton, 2010; Killingsworth et al., 2023; Kushlev et al., 2015). 돈은 일상의 위협을 해결하는 자원으로, 안녕감을 저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사건과 경험의 영향력을 완충시켜 주기 때문이다. 자녀 양육은 많은 투자와 희생을 요하는 과업으로, 이때 양육에 대한 동기는 힘든 양육 행동을 성공적으로 지속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 자녀 양육에 대

한 높은 관심을 가진 부모일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자신의 부정 정서 경험의 중요한 기준 및 잣대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녀와의 관계를 통한 긍정적 정서 경험은 그에 대한 동기 수준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의할 점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정 정서에 대한 양육 동기의 조절 효과는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을 때가 아닌, 높을 때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즉, 자녀와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양육 동기의 높고 낮음은 부모의 부정 정서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관계가 만족스러울 때는 높은 양육 동기가 부정 정서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후속 연구를 통해 조절 효과의 기저에 자리한 심리적 기제를 밝힌다면 부모-자녀 관계, 양육 동기, 행복의 관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REFERENCES

- Adler, N. E., Epel, E. S., Castellazzo, G., & Ickovics, J. R.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6), 586-592.
- Atkinson, J. (1964). *An introduction to motivation*. Van Nostrand.
- Batson, C. (2012). A history of prosocial behavior research. In A. W. Kruglanski, & W. Stroebe (Eds.), *Handbook of the history of social psychology* (pp. 243-264). Psychology Press.
- Bhargava, S., Kassam, K. S., & Loewenstein, G. (2014). A reassessment of the defense of parenthood. *Psychological Science, 25*(1), 299-302.
- Brown, J. D. (2012). Understanding the better than average effect: Motives (still) matt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2), 209-219.
- Buckels, E. E., Beall, A. T., Hofer, M. K., Lin, E. Y., Zhou, Z., & Schaller, M. (2015). Individual differences in activation of the parental care motivational system: Assessment, prediction, and im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8*(3), 497-514.
- Casas, F., Coenders, G., Cummins, R. A., González, M., Figuer, C., & Malo, S. (2008). Does subjective well-being show a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9*, 197-205.
- Covington, M. V. (2000). Goal theory, motivation, and school achievement: An integrative review.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1), 171-200.
- Crocker, J. (2002). Contingencies of self-worth: Implications for self-regulation and psychological vulnerability. *Self and Identity, 1*(2), 143-149.
- Crocker, J., & Wolfe, C. T. (2001). Contingencies of self-worth. *Psychological Review, 108*(3), 593-623.
- Cummins, R. A., Eckersley, R., Pallant, J., Van Vugt, J., & Misajon, R. (2003). Developing a national index of subjective wellbeing: The Australian Unity Wellbeing Index. *Social Indicators Research, 64*, 159-190.
- Delle Fave, A., & Massimini, F. (2004). Parenthood and the quality of experience in daily life: A longitudinal study. *Social Indicators Research, 67*(1-2), 75-106.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iener, E., Seligman, M. E., Choi, H., & Oishi, S. (2018). Happiest people revisited.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3*(2), 176-184.
- Diener, E., Wirtz, D., Tov, W., Kim-Prieto, C., Choi, D., Oishi, S., & Biswas-Diener, R. (2009). New measures of well-being: Flourishing and positive and negative feeling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9*, 247-266.
- Dyrdal, G. M., & Lucas, R. E. (2013). Reaction and adaptation to the birth of a child: A couple-leve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49*(4), 749-761.
- Eibach, R. P., Libby, L. K., & Ehrlinger, J. (2009). Priming family values: How being a parent affects moral evaluations of harmless but offensive ac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5), 1160-1163.
- Epley, N., & Schroeder, J. (2014). Mistakenly seeking

- solitud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3(5), 1980-1999.
- Frey, B. S., & Stutzer, A. (2014). Economic consequences of miscalculating utilit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5, 937-956.
- González, M., Coenders, G., Saez, M., & Casas, F. (2010). Non-linearity, complexity and limited measur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specific life domains and satisfaction with life as a whol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 335-352.
- Hansen, T. (2012). Parenthood and happiness: A review of folk theories versus empirical eviden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8(1), 29-64.
- Harkness, S., & Super, C. M. (2002). Culture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ume 2: Biology and ecology of parenting* (2nd ed., pp. 253-280). Erlbaum.
- Harlow, R. E., & Cantor, N. (1996). Still participating after all these years: A study of life task participation in later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6), 1235-1249.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 Headey, B., Holmstrom, E., & Wearing, A. (1985). Models of well-being and i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17, 211-234.
- Heller, D., Watson, D., & Ilies, R. (2004). The role of person versus situation in life satisfaction: A critical examin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30(4), 574-600.
- Hofer, M. K., Buckels, E. E., White, C. J., Beall, A. T., & Schaller, M. (2018). Individual differences in activation of the parental care motivational system: An empirical distinction between protection and nurturance.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9(8), 907-916.
- Hsieh, C. M. (2016). Domain importance in subjective well-being measur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7, 777-792.
- Hudson, N. W., Lucas, R. E., & Donnellan, M. B. (2020). Are we happier with others? An investigation of the links between spending time with others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9(3), 672-694.
- Kahneman, D., & Deaton, A. (2010). High income improves evaluation of life but not emotional well-being.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38), 16489-16493.
- Kahneman, D., Krueger, A. B., Schkade, D. A., Schwarz, N., & Stone, A. A. (2004). A survey method for characterizing daily life experience: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Science*, 306, 1776-1780.
- Kaplan, H., Hill, K., Lancaster, J., & Hurtado, A. M. (2000). A theory of human life history evolution: Diet, intelligence, and longevity. *Evolutionary Anthropology: Issues, News, and Reviews*, 9(4), 156-185.
- Kenrick, D. T., Griskevicius, V., Neuberg, S. L., & Schaller, M. (2010). Renovating the pyramid of needs: Contemporary extensions built upon ancient foundation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5(3), 292-314.
- Kerry, N., & Murray, D. R. (2018). Conservative parenting: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hood, moral judgment, and social conservat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4, 88-96.
- Killingsworth, M. A., Kahneman, D., & Mellers, B. (2023). Income and emotional well-being: A conflict resolved.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20(10), e2208661120.
- Kim, A., Sohn, Y. W., Rim, H. & Kim, H. (2014). The impacts of social exclusion and the need to belong on the affective forecasting of social events (사회적 배척과 소속 욕구가 사회적 사건의 정서 예측에 미치는 영향). *Korean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17(3), 83-94.
- Kopper, B. A., & Smith, M. S. (2001).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infertility and childless coupl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1, 2275-2291.
- Koropecj-Cox, T., Çopur, Z., Romano, V., & Cody-Rydzewski, S. (2018).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parents and childless or childfree couples. *Journal of Family Issues*, 39(1), 155-179.
- Kushlev, K., Dunn, E. W., & Lucas, R. E. (2015). Higher

- income is associated with less daily sadness but not more daily happines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6(5), 483-489.
- Le, B. M., Sakaluk, J. K., Day, L. C., & Impett, E. A. (2019). How gender, age, and socioeconomic status predict parenting goal pursui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6(10), 3313-3338.
- Lee, D. Y., Park, S. H., Uhlemann, M. R., & Patsult, P. (2000). What makes you happy? A comparison of self-reported criteria of happiness between two cultur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0(3), 351-362.
- Lee, H., & Shin, J. (2021). Strong relational motives of married individuals are beneficial only for the less neurotic (기혼자의 관계적 동기와 만족도: 신경증의 조절효과).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35(2), 93-109.
- Li, Y. J., & Gong, H. (2018). Being a parent together: Parental role salience promotes an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Frontiers in Psychology*, 9, 1462.
- Lim, N., Lee, H., & Suh, E. M. (2010).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 findings in Korea (한국에서의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 사용 연구 개관).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9(1), 21-47.
- Loewe, N., Bagherzadeh, M., Araya-Castillo, L., Thieme, C., & Batista-Foguet, J. M. (2014). Life domain satisfactions as predictors of overall life satisfaction among workers: Evidence from Chil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8, 71-86.
- Luhmann, M., Hofmann, W., Eid, M., & Lucas, R. E. (2012). Subjective well-being and adaptation to life events: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3), 592-615.
- Manzi, C., Vignoles, V. L., Regalia, C., & Scabini, E. (2006). Cohesion and enmeshment revisited: Differentiation, identity, and well-being in two European cultur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3), 673-689.
- McAdams, K. K., Lucas, R. E., & Donnellan, M. B. (2012). The role of domain satisfaction in explaining the paradoxical association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ag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9, 295-303.
- Murray, S. L., Griffin, D. W., Rose, P., & Bellavia, G. M. (2003). Calibrating the sociometer: The relational contingencies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1), 63-84.
- Musick, K., Meier, A., & Flood, S. (2016). How parents fare: Mothers' and fathers' subjective well-being in time with 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1(5), 1069-1095.
- Myrskylä, M., & Margolis, R. (2014). Happiness: Before and after the kids. *Demography*, 51(5), 1843-1866.
- Neel, R., Kenrick, D. T., White, A. E., & Neuberg, S. L. (2016). Individual differences in fundamental social mo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0(6), 887-907.
- Nelson, S. K., Kushlev, K., English, T., Dunn, E. W., & Lyubomirsky, S. (2013). In defense of parenthood: Children are associated with more joy than misery. *Psychological Science*, 24(1), 3-10.
- Nelson, S. K., Kushlev, K., & Lyubomirsky, S. (2014). The pains and pleasures of parenting: When, why, and how is parenthood associated with more or less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40(3), 846-895.
- Nelson-Coffey, S. K. (2018). Married...with children: The science of well-being in marriage and family life. In E. Diener, S. Oishi, & L. Tay (Eds.), *Handbook of well-being*. DEF Publishers.
- Nomaguchi, K. M., & Milkie, M. A. (2003). Costs and rewards of children: The effects of becoming a parent on adults' li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5(2), 356-374.
- Nomaguchi, K., & Milkie, M. A. (2020). Parenthood and well-being: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2(1), 198-223.
- Oishi, S., Diener, E. F., Lucas, R. E., & Suh, E. M. (1999). Cross-cultural variations in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Perspectives from needs and valu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8), 980-990.
- Orth, U., Erol, R. Y., & Luciano, E. C. (2018). Development of self-esteem from age 4 to 94 years: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44(10), 1045-1080.
- Orth, U., & Robins, R. W. (2014). The development of

- self-estee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3(5), 381-387.
- Pick, C. M., Ko, A., Kenrick, D. T., Wiesel, A., Wormley, A. S., Awad, E., Al-Shawaf, L., Barry, O., Bereby-Meyer, Y., Boonyasirawat, W., Brandstätter, E., Ceylan-Batur, S., Choy, B. K. C., Crispim, A. C., Cruz, J. E., David, D., David, O. A., Defelipe, R. P., Elmas, P., ... & Varnum, M. E. (2022). Fundamental social motives measured across forty-two cultures in two waves. *Scientific Data*, 9(1), 1-12.
- Prentice, D. A., & Carranza, E. (2002). What women and men should be, shouldn't be, are allowed to be, and don't have to be: The contents of prescriptive gender stereotyp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6(4), 269-281.
- Schaller, M. (2018). The parental care motivational system and why it matters (for everyon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7(5), 295-301.
- Schimmack, U., Diener, E., & Oishi, S. (2002). Life-satisfaction is a momentary judgment and a stable personality characteristic: The use of chronically accessible and stable sources. *Journal of Personality*, 70(3), 345-385.
- Schimmack, U., & Oishi, S. (2005). The influence of chronically and temporarily accessible information on life satisfaction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3), 395-406.
- Segrin, C., Woszidlo, A., Givertz, M., Bauer, A., & Murphy, M. T. (2012). The association between overparenting,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entitlement and adaptive traits in adult children. *Family Relations*, 61, 237-252.
- Segrin, C., Woszidlo, A., Givertz, M., & Montgomery, N. (2013). Parent and child traits associated with overparent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2(6), 569-595.
- Sheldon, K. M. (2004). *Optimal human being: An integrated multi-level perspective*. Erlbaum.
- Shin, J. (2019). You are my happiness: Socially enriched happiness belief predicts life satisfaction, especially among the poor. *Cognition and Emotion*, 33(8), 1702-1708.
- Sun, J., Harris, K., & Vazire, S. (2020). Is well-being associated with the quantity and quality of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9(6), 1478-1496.
- Tiefenbach, T., & Kohlbacher, F. (2015). Happiness in Japan in times of upheaval: Empirical evidence from the national survey on lifestyle preference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6, 333-366.
- White, M. P., & Dolan, P. (2009). Accounting for the richness of daily activities. *Psychological Science*, 20, 1000-1008.

원고접수: 2024.02.01

수정접수: 2024.03.15

게재확정: 2024.03.25